

#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 **1. 음운 (문제)**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23004-0021]

## 01 &lt;보기&gt;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최소 대립쌍을 이루려면 두 단어의 분절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하고,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두 음운의 성질이 동질적이어야 해요. 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끼리, 비분절 음운은 비분절 음운끼리 대응해야 하며 자음, 모음, 반모음도 해당 종류끼리 대응해야 해요. 예를 들면 ‘살’과 ‘알’은 분절 음운의 개수가 다르므로, ‘살’과 ‘사이’는 ‘㉠’과 ‘ㅣ’가 각각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이제 아래 묶인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눈(目)[눈] - 눈(雪)[눈:], 마리 - 머리, 이마 - 치마, 하루 - 나라, 키 - 아이

학생: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눈(目)’과 ‘눈(雪)’은 장단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 ② ‘마리’와 ‘머리’는 ‘ㅍ’와 ‘ㅂ’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 ③ ‘이마’와 ‘치마’는 ‘ㅇ’과 ‘ㅈ’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 ④ ‘하루’와 ‘나라’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음운이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 ⑤ ‘키’의 ‘ㄱ’과 ‘아이’의 ‘ㅏ’가 각각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므로 ‘키’와 ‘아이’는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23004-0022]

## 02 다음은 국어의 ‘음절’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만을 ㉡~㉣ 중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음절은 홀로 발음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음절 유형은 크게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 국어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만 보아도 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이 무엇인지 또는 음절 경계가 어디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나 ㉠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 갓 구운 빵을 ㉢ 종이에 싸서 아이에게 건넸다.
- 아버지께서는 고등어보다는 ㉣ 갈치를 좀 더 선호하셔.
- 학문의 기초가 ㉠ 쌓임에 따라 그는 공부하는 데 점점 재미를 느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3004-0023]

## 03

〈보기〉는 자음 분류에 대한 학습 내용 및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학습 내용] 국어에는 모두 19개의 자음이 존재하는데, 이 자음들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의 다섯 가지로 나뉘고,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이때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파열음, 파찰음들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다시 평음, 경음, 격음의 세 부류로 나뉘는 것은 국어 자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편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을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묶어서 장애음으로, 공기의 방해 정도가 약하고 입안이나 코안에서의 울림이 큰 비음과 유음을 묶어서 공명음이라고 부른다.

[학습 활동] 위에서 배운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자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묶어 보자. (단, 모든 자음을 묶지는 않아도 됨.)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ㅌ, ㅍ, ㅎ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

- 보람: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ㅋ, ㆁ, ㅌ, ㅍ, ㅎ}, {ㄴ, ㄹ, ㅁ, ㅇ}
- 성준: {ㄱ, ㄲ, ㅇ, ㅋ}, {ㄴ, ㄷ, ㄸ, ㄹ, ㅅ, ㅆ, ㅌ}, {ㅁ, ㅂ, ㅃ, ㅍ}, {ㅈ, ㅉ, ㆁ}, {ㅎ}
- 수지: {ㄱ, ㄷ, ㅂ, ㅈ}, {ㄲ, ㄸ, ㅃ, ㅉ}, {ㅋ, ㆁ, ㅌ, ㆁ}
- 연경: {ㄱ, ㄲ, ㄷ, ㄸ, ㅂ, ㅃ, ㅋ, ㆁ, ㅌ, ㅍ}, {ㅈ, ㅉ, ㆁ}, {ㅅ, ㅆ, ㅎ}
- 혁준: {ㄴ, ㅁ, ㅇ}, {ㄹ}

- ① ‘보람’은 모든 자음을 대상으로,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었군.
- ② ‘성준’은 모든 자음을 대상으로, 조음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조음 위치만을 기준으로 묶었군.
- ③ ‘수지’는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약한 자음만을 대상으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 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군.
- ④ ‘연경’은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큰 자음만을 대상으로,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었군.
- ⑤ ‘혁준’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에서의 울림이 큰 자음만을 대상으로, 조음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군.

[23004-0024]

## 0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단모음을 혀의 앞뒤 위치와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ㅑ	ㅊ	ㅓ	ㅆ
저모음	ㅕ		ㅗ	

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데 그 위치는 대체로 경구개 부근이고,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며 연구개 부근과 매우 가깝다. 혀의 높낮이는 입의 벌어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혀의 높이가 높으면 입이 적게 벌어지고 낮으면 입이 많이 벌어진다.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이고 평순 모음은 그러지 않는 모음이다.

단모음들 간의 차이는 단모음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을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차이점이 많아질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멀어진다. 예를 들어 ‘ㅓ’와 ‘ㅑ’는 혀의 앞뒤 위치에서만 차이를 보이므로 가까운 관계이지만 ‘ㅓ’와 ‘ㅊ’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서로 먼 관계이다.

- ① ‘ㅡ’를 발음할 때보다 ‘ㅓ’를 발음할 때 입이 보다 많이 벌어진다.
- ② ‘ㅊ’에서 ‘ㅓ’로 발음을 바꿀 때는 혀의 최고점이 연구개 부근으로 옮겨 간다.
- ③ ‘ㅑ’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가 같으면서 입술 모양만 둥근 모음은 ‘ㅊ’이다.
- ④ ‘ㅊ’를 발음할 때와 ‘ㅓ’를 발음할 때 모두 혀의 높이가 고모음보다 낮고 저모음보다 높다.
- ⑤ 단모음의 분류 기준으로 두 모음의 관계를 판단하면, ‘ㅊ’와 ‘ㅑ’보다는 ‘ㅊ’와 ‘ㅓ’가 더 가깝다.

###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단모음 앞에서 단모음이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하며, 두 개의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 (1) 가. 쓰-+-어 → [쓰]  
 나. 가-+-아서 → [가서]
- (2) 가. 이기-+-어라 → [이겨라]  
 나. 배우-+-어도 → [배워도]
- (3) 가. 뛰-+-어 → [뛰어/뛰여]  
 나. 동생+이-+-오 → [동생이오/동생이요]

(1가)는 용언 어간 끝의 ‘-’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 탈락의 예이다. (1나)는 어간 끝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동일 모음 탈락의 예이다. 모음 탈락은 매우 규칙적인 현상으로, ‘쓰[쓰]’와 ‘가서[가서]’에서 보는 것처럼 표기에도 적용되어 줄어든 대로 적는다.

(2)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남을 보여 주는 예이다. (2가)는 어간 ‘이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이겨라]로 발음될 때, 용언 어간의 단모음 ‘i’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2나)는 어간 ‘배우-’와 어미 ‘-어도’가 결합해 [배워도]로 발음될 때, 단모음 ‘u’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이 두 가지 반모음화를 각각 ‘j’ 반모음화, ‘w’ 반모음화라고 부른다. 반모음화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음절 수는 줄게 된다.

(3)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가 활용할 때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는 예이다. 이것은 ‘ㄱ’과 ‘l’ 뒤에 오는 어미 ‘-어,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여 [여, 요]로 발음되는 것인데, [어, 오]와 함께 [여, 요]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어간 모음의 종류에 따라 첨가되는 반모음이 달라지는데, 어간 모음이 ‘i, ɰ, ɰ’인 경우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되고 어간 모음이 ‘ɰ, ɰ’인 경우에는 반모음 ‘w’가 첨가된다. 반모음 ‘w’가 첨가되는 예로는 ‘보-+-아라 → [보와라]’ 등이 있는데, 이런 ‘w’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음의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와 관련하여, 국어에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는 것은 발음상 그리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이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23004-0025]

## 05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음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크-+-□서 → [커서], 나서-+-□도 → [나서도], 견디-+-□야 → [견더야]

- ① ㅡ                      ② ㄱ                      ③ ㅏ                      ④ j                      ⑤ w

[23004-0026]

## 0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lt;보기&gt;의 ㉠~㉤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이 젓갈은 6월에 잡은 새우로 ㉠답가서[답가서] 육젓이라고 한다.
- 그녀는 자랑삼아 보석 반지를 나에게 ㉡보여[보여] 주었다.
- 선원들은 거친 파도와 굽주림과 ㉢싸워야[싸워야] 했다.
- 여의도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피여] 있다.
- 나는 그의 보호자가 ㉤아니오[아니요].

- ① ㉠: 용언 어간의 끝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둘 다 ‘ㅏ’라서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② ㉡: 용언 어간 끝의 ‘ㄱ’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은 것으로, 음절 수에는 변화가 없다.  
 ③ ㉢: 용언 어간 끝의 ‘ㄴ’이 어미 ‘-어야’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뀐 것으로, 음절 수는 줄어들었다.  
 ④ ㉣: 용언 어간 끝의 ‘ㅣ’가 어미 ‘-어’ 앞에서 반모음 ‘j’로 바뀐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⑤ ㉤: 용언 어간 끝의 ‘ㅣ’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w’가 덧붙은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23004-0027]

01 <보기>의 ㉠~㉤ 중 ㉠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따르면,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ㄷ, 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ㄷ, ㅌ’이 각각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굳히다’처럼 ‘ㄷ’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가 아닌 ‘히’가 결합할 때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구개음화는 후행하는 말이 조사, 접미사 같은 형식 형태소일 때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며,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도준아, 집에 ㉠같이 가자.” 침묵을 ㉡버티지 못한 내가 몇 번이나 말을 걸어 보았지만 도준이는 조개처럼 굳게 ㉢닫힌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나는 도준이에게 ㉣끝인사를 듣지 못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3004-0028]

02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음운 변동 유형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예 꽃[꽃]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예 앉[앉]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예 맨입[맨닙]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예 입학[이팍]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교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음운 개수가 변화한다. 또 음운 변동이 단어 내에서 한 번만 일어나기도 하고, 한 유형의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 ① ‘붙임[부침]’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② ‘벽난로[병날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③ ‘닭하고[다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다.
- ④ ‘웁는[웁:는]’과 ‘읽고[일꼬]’는 모두 교체 및 탈락이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다.
- ⑤ ‘늦어름[느너름]’과 ‘막일[망닐]’은 모두 교체 및 첨가가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늘었다.

[23004-0029]

03 (가)를 참고할 때, (나)의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예사소리)			ㅈ		
	경음(된소리)			ㅉ		
	격음(거센소리)			ㅊ		
마찰음	평음(예사소리)		ㅅ			ㅎ
	경음(된소리)		ㅆ			
	격음(거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닫는[닫는], 밥 먹는다[밤명는다], 신라[실라]

- ①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
- ②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은 바뀌지 않고 조음 위치만 바뀐다.
- ③ 서로 인접한 두 자음의 선행하는 자음과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
- ④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같아진다.
- ⑤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이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과 같아진다.



[23004-0030]

## 04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그중 종성에 대한 제약으로는 ㉠종성에 오는 자음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과 ㉡종성에 오는 자음의 가짓수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국어의 형태소 중에는 겹받침을 가지거나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지 못하는 자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은데, 이 경우 자음이 탈락하거나 다른 자음으로 바뀌어서 종성에 대한 제약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 ① ‘삶’이 [삼:]으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 ② ‘뭍자’가 [묵짜]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 ③ ‘값다’가 [갑따]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 ④ ‘빋다가’가 [빈따가]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 ⑤ ‘옳고’가 [읍꼬]로 발음되는 것은 ㉠, ㉡ 모두와 관련된다.

[23004-0031]

## 0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표준 발음법 제12항은 받침 ‘ㅎ’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 받침으로 쓰인 ‘ㅎ’은 뒤에 어떤 말이 오든 원래 음가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교체, 탈락, 축약 등의 음운 변동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놓는[논는]’처럼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된다. ‘놓아[노아], 놓이다[노이다]’처럼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이 발음되지 않는다. 또 ‘놓고[노코], 놓다[노타], 놓자[노차]’처럼 ㉢‘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ㅋ, ㅌ, ㅊ]으로 발음된다.

	㉠	㉡	㉢
①	닿아[다라]	많아[마:나]	낳은[나은]
②	쌍는[싼는]	싫어[시러]	닿지[달치]
③	낳아[나아]	쌍지[싸치]	종던[조:턴]
④	얹은[아는]	끓어[고라]	얹고[안코]
⑤	종네[존:네]	많고[만:코]	쌍인[싸인]

[23004-0032]

## 06 &lt;보기&gt;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표준 발음법 자료]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붙임] ‘ㄴ, ㄹ’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ㅈ ㅊ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ㅌ ㄴ’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쯤, 처’는 [저, 쯤,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는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① ‘제4항’의 [붙임]을 보니, ‘기회’의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겠구나.
- ② ‘제5항’의 ‘다만 1’을 보니, ‘가져’의 ‘ㄷ’은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하겠구나.
- ③ ‘제5항’의 ‘다만 2’를 보니, ‘예의’의 ‘ㄷ’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하겠구나.
- ④ ‘제5항’의 ‘다만 3’을 보니, ‘희망’의 ‘ㄴ’은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하겠구나.
- ⑤ ‘제5항’의 ‘다만 4’를 보니, ‘의사의’의 첫음절의 ‘ㄴ’과 세 번째 음절의 ‘ㄴ’은 둘 다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겠구나.

[22004-0021]

01

〈보기〉를 참고하여 주어진 단어의 음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분절 음운에는 자음, 모음, 반모음이라는 세 부류의 소리가 있다.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조음 과정에서 방해받는다. 또한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어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다. 반면 모음은 조음 과정에서 방해받지 않으며 홀로 음절을 이루어 발음할 수 있다. 반모음은 자음처럼 홀로 쓰일 수 없어서 항상 모음과 결합하여 쓰인다.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면 이중 모음이 된다.

다음 제시된 단어에 쓰인 자음, 모음, 반모음에 대해 탐구해 보자.

사과, 연꽃

- ① ‘연꽃’의 ‘ㄱ’은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군.
- ② ‘사과’보다는 ‘연꽃’이 더 많은 분절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군.
- ③ ‘사과’의 ‘ㄴ’과 ‘연꽃’의 ‘ㄷ’는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하여 발음되는군.
- ④ ‘사과’의 ‘ㅅ’과 ‘ㄱ’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이 조음 과정에서 방해받는다.
- ⑤ ‘연꽃’과 달리 ‘사과’를 발음할 때는 마지막 음운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다.

[22004-0022]

02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오늘은 음절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음절은 홀로 발음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음절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지요. 초성이나 중성이 음절에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국어에서 초성과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각각 한 개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초성이나 종성에 자음이 두 개 오는 음절 유형은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

- ① ‘여자’를 발음할 때, 자음이 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② ‘노인’을 발음할 때,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③ ‘닭과’를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④ ‘삶과’를 발음할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깎다’를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03

[22004-0023]

〈보기〉에 제시된 (가), (나)의 조건을 각각 충족하는 음절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거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ㅜ	ㅡ	ㅓ
중모음	ㅔ	ㅛ	ㅚ	ㅜ
저모음	ㅙ		ㅝ	

(가)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고, 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혀의 최고점이 입 뒤쪽에 놓이고 입술이 둥글게 모아진다.

(나)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코로 공기를 내보내고, 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혀의 최고점이 입 뒤쪽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가)	(나)
①	파	드
②	주	누
③	구	아
④	두	무
⑤	코	미

[22004-0024]

## 04 &lt;보기&gt;를 바탕으로 소리의 길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장단은 소리의 길고 짧은 차이로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지닌다.
- ㉡ 장단은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현대 국어의 유일한 비분절 음운이다.
- ㉢ 현대 국어의 특정 지역 방언에서는 장단이 비분절 음운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 ㉣ 원칙적으로 국어의 장음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실현된다. 따라서 원래는 장음이라고 하더라도 복합어를 이루면서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면 그 길이가 짧아진다.
- ㉤ 발음 실태 조사 결과,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장단이 비분절 음운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 ① ㉠으로 보아 ‘병(病)[병:]’과 ‘병(甁)[병]’은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른 차이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변별되는 것이구나.
- ② ㉡으로 보아 ‘말[言][말:]’과 ‘말[馬][말]’을 발음할 때 소리의 길이를 달리하는 것을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고 있겠구나.
- ③ ㉢으로 보아 ‘밤[粟][밤:]’과 ‘밤[夜][밤]’의 의미를 소리의 길이를 통해 변별하지 않는 방언도 있을 수 있겠구나.
- ④ ㉣으로 보아 ‘눈보라’의 ‘눈[눈:]’도 ‘첫눈’에서는 짧게 발음되겠구나.
- ⑤ ㉤으로 보아 ‘소식(消息)’을 [소식]이 아닌 [소:식]으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겠구나.

[22004-0025]

## 05 &lt;보기&gt;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쌍을 찾아보면 됩니다.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만 차이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또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의 개수가 같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물’과 ‘불’은 최소 대립쌍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예입니다. 최소 대립쌍의 예를 더 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학생:

㉠

- ① ‘공’과 ‘곰’은 최소 대립쌍입니다.
- ② ‘산’과 ‘선’은 최소 대립쌍입니다.
- ③ ‘고을’과 ‘노을’은 최소 대립쌍입니다.
- ④ ‘머리’와 ‘허리’는 최소 대립쌍입니다.
- ⑤ ‘소리’와 ‘오리’는 최소 대립쌍입니다.

[22004-0026]

## 06 &lt;보기&gt;의 ㉠~㉣의 발음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식당에서[식당에서] ㉡ 남은[나른] 음식은 돼지 밥으로 썼다.
- 그는 ㉢ 첫아이[처다이] 앞에서 ㉣ 굳이[구지] 나를 ㉤ 높이어[노피어/노피여] 주었다.

- ① ㉠의 발음을 보니 받침 ‘ㅇ’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해도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 가지 않는군.
- ② ㉡의 발음을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연음되는군.
- ③ ㉢의 발음을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에는 연음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군.
- ④ ㉣의 발음을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연음만 일어나는군.
- ⑤ ㉤의 발음을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결합할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연음되는군.

[22004-0027]

## 01 &lt;보기&gt;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홀이불[흔니불]
- ㉡ 닥대[담:따]
- ㉢ 달히대[다치대]

- ① 음운 변동 결과 ㉠, ㉡, ㉢은 모두 음운의 개수 변화가 일어난다.
- ② ㉠에서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고, ㉢에서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 ③ ㉠에서는 음운의 첨가가 일어나고, ㉡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
- ④ ㉡에서 일어나는 교체는 용언의 어간이 특정한 음운으로 끝나는 환경에서 일어난다.
- ⑤ ㉢에서는 교체가 일어난 후 음운의 축약이 이루어진다.

[22004-0028]

## 02 &lt;보기&gt;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음운의 탈락은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동일 모음 탈락, ‘-’ 탈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고해서 각 현상의 사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 자음군 단순화: 받침 자리에서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현상
- ‘ㄹ’ 탈락: ‘ㄹ’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ㄴ, ㅅ’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현상
- ‘ㅎ’ 탈락: ‘ㅎ’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 동일 모음 탈락: ‘ㅏ/ㅑ’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ㅏ/ㅑ’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 ‘-’ 탈락: ‘-’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가 탈락하는 현상

학생: 

㉠

- ① 자음군 단순화의 사례로는 ‘녘’을 들 수 있습니다.
- ② ‘ㄹ’ 탈락의 사례로는 ‘(문어가 바다에) 사니’를 들 수 있습니다.
- ③ ‘ㅎ’ 탈락의 사례로는 ‘(물이) 끓는’을 들 수 있습니다.
- ④ 동일 모음 탈락의 사례로는 ‘(거리에) 서서’를 들 수 있습니다.
- ⑤ ‘-’ 탈락의 사례로는 ‘(구슬을) 모아라’를 들 수 있습니다.

[22004-0029]

## 03

〈보기〉에 주어진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순행적 유음화는 ‘ㄹ’에 후행하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순행적 유음화는 합성어와 파생어에도 적용되지요. 한편 역행적 유음화는 ‘ㄹ’에 선행하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역행적 유음화는 주로 한자어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는 모두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학습해 볼까요?

## 〈자료〉

- (가) 물놀이[물로리], 권력[꺄력]  
 (나) 앉- + -는 → [알튼], 훑- + -는 → [훑튼]  
 (다) 올- + -는 → [우:는], 알- + -니 → [아:니]  
 (라) 버들 + 나무 → [버드나무], 하늘 + -님 → [하느님]  
 (마) 공권력(公權力) → [공핀넉], 입원료(入院料) → [이뵤뇨]

- ① (가)의 ‘물놀이’는 순행적 유음화, ‘권력’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 ② (나)를 통해 용언의 어간이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으로 끝날 때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③ (다)를 통해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라)를 통해 고유어의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마)를 통해 한자어에서 ‘ㄴ’의 뒤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004-0030]

## 04 &lt;보기&gt;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가) 살피-+-어 → 살피[살피], 이기-+-어라 → 이겨라[이겨라]  
 (나) 져[저], 찌서[찌서], 다쳐[다치]  
 (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라) 시계[시계/시계], 혜택[혜:택/혜:택]  
 (마) 바꾸-+-어 → 바꿔[바꿔], 보-+-아서 → 봐서[봐:서]

- ① (가)를 보니,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② (나)를 보니, ‘스, 쩌, 츠’ 뒤에서는 반모음 ‘j’가 발음되지 않는구나.  
 ③ (다)를 보니,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④ (라)를 보니, ‘계’와 ‘혜’에서 반모음 ‘j’를 발음하지 않는 것도 허용되는구나.  
 ⑤ (마)를 보니, 자음과 단모음 ‘ㅏ/ㅑ’ 사이에 반모음 ‘w’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22004-0031]

## 05 &lt;보기&gt;를 바탕으로 ‘ㅎ’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가) 놓고[노코], 종던[조:턴], 넓히다[넌피다], 앉히다[안치다]  
 (나)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다) 놓는[논논], 쌓네[싼네]  
 (라) 많소[만:쏘], 낱습니다[나씀니다]  
 (마) 쌓이다[싸이다], 닳아[다라]

- ① (가): ‘ㅎ’의 앞이나 뒤에 ‘ㄱ, ㄷ, ㅂ, 스’이 놓이면 두 음운이 축약되어 각각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된다.  
 ② (나): ‘츠, ㅌ’ 뒤의 ‘ㅎ’은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③ (다): ‘ㄴ’ 앞에 놓인 ‘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어 ‘ㄴ’으로 발음된다.  
 ④ (라): ‘ㅎ’ 뒤에 ‘ㅅ’이 올 때에는 ‘ㅎ’은 발음되지 않고, ‘ㅅ’이 ‘ㅆ’으로 발음된다.  
 ⑤ (마):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놓이면 ‘ㅎ’은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22004-0032]

## 06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음운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에서 여러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례를 한번 들어 볼까요?

학생:

㉠

- ① ‘옴네[음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 ② ‘똥다[똥타]’는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 ③ ‘색연필[생년필]’은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 ④ ‘따뜻하다[따뜨타다]’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 ⑤ ‘급행열차[그굉녘차]’는 축약과 첨가가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21004-0019]

01 (가)와 (나)를 참고할 때, <보기>의 조건에 만족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가)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격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ㅍ	ㅡ	ㅜ
중모음	ㅑ	ㅑ	ㅓ	ㅓ
저모음	ㅕ		ㅗ	

【 보기 】

첫음절의 표기	둘째 음절의 표기
㉠	㉡

- 자음을 받음할 때의 특징: ㉡의 초성에 있는 비음의 영향으로 ㉠의 종성이 ㉠ 종성의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발음된다.
- 모음을 받음할 때의 특징: ㉠은 입술 모양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고 ㉡은 입술 모양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한다.

- ① 난로      ② 국민      ③ 밥물      ④ 만능      ⑤ 꽃눈

[21004-0020]

## 02 <보기>를 참고하여 우리말의 음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음운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ㄱ’을 각기 다른 음성으로 발음해도 그것을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음운을 구별할 때는 최소 대립쌍을 활용할 수 있다.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을 말한다. 최소 대립쌍을 통해 구별되는 음운을 찾으려면 단어의 쌍을 발음할 때 나는 소리 중의 한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아야 한다.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을 통해 우리말 음운에 대해 탐구해 보자.

불, 불, 발, 풀, 강, 감, 우리, 뿌리, 국위, 국어

\* 단, 제시된 단어들의 모음은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하며, 단어의 뜻에 따른 소리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불’, ‘불’, ‘발’은 중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ㄴ’, ‘ㄷ’, ‘ㅌ’를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불’과 ‘풀’은 초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ㅂ’과 ‘ㅍ’을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강’과 ‘감’은 중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ㅇ’과 ‘ㄹ’을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우리’와 ‘뿌리’는 첫음절의 초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ㅇ’과 ‘ㅍ’을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국위’와 ‘국어’는 둘째 음절의 중성 자리에 있는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ㄱ’과 ‘ㅋ’을 각기 다른 음운이라고 볼 수 있군.

[21004-0021]

### 03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예시의 음운 변동 양상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탈락’ 또는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ㄷ’ 탈락, 동일 모음 탈락 등이 있다. 용언에서는 어간 끝음절에 있는 음운이 특정한 음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축약’은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ㅎ’이 ‘ㄱ, ㄷ’ 등의 예사소리와 만나 ‘ㅋ, ㅌ’ 등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있다. 용언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받침에 있는 ‘ㅎ’이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 예시	음운 변동 양상
①	멀-+-니 → 머니[머:니]	탈락
②	까맣-+-지 → 까맣지[까:마치]	축약
③	가-+-아서 → 가서[가서]	탈락
④	얹-+-고 → 얹고[안코]	축약
⑤	잠그-+-아 → 잠가[잠가]	축약

[21004-0022]

### 0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솟-+-고 → [솟꼬], 꺾-+-다 → [꺾따]  
 ㉡ 훔-+-는 → [훔른], 잃-+-는 → [일른]

- ① ㉠은 음운 변동 중에서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② ㉡은 음운 변동 중에서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났다.  
 ③ ‘놓-+-고 → [노꼬]’는 ㉠과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적용된 예이다.  
 ④ ‘훔-+-는 → [훔른]’은 ㉡과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적용된 예이다.  
 ⑤ ㉠, ㉡은 모두 중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21004-0023]

## 05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1]의 ㉠~㉣을 참고하여, [학습 자료 2]의 ㉠~㉣의 표준 발음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학습 자료 1]

- ㉠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스, ㅍ,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비]으로 발음한다.
- ㉡ 표준 발음법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표준 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ㄷ, ㅌ, ㅎ), ㅂ(ㅂ, ㅃ,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학습 자료 2]

홍부는 제비가 준 박씨를 심어서 ㉠밭이랑[바치랑] ㉡논이랑[논니랑] 집 등을 얻었다. 홍부는 그 ㉢밭이랑[반니랑]과 ㉣논이랑[논니랑]에 ㉤꽃이랑[꼬치랑] 곡식 등을 심었다.

- ① ㉠은 ㉣이 적용된 것입니다.
- ② ㉡는 ㉣이 적용된 것입니다.
- ③ ㉢는 ㉠, ㉣, ㉤이 적용된 것입니다.
- ④ ㉣는 ㉣, ㉤이 적용된 것입니다.
- ⑤ ㉤는 ㉣이 적용된 것입니다.

[21004-0024]

01 <보기>의 ㉠~㉣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달히다[다치다]      ㉡ 걸모양[건모양]      ㉢ 흙화덕[흐과덕]

- ①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 ② ㉡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그다음 음절의 자음과 동일하게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 ③ ㉡에서는 음운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나지만, ㉠과 ㉢에서는 음운 변동이 세 번 일어나는군.
- ④ ㉠과 ㉢에서는 예사소리가 ‘ㅎ’을 만나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군.
- ⑤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그 이전에 비해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군.

[21004-0025]

02 <보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자료]** ‘동화음’은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 ‘피동화음’은 동화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이다. 동화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구분될 수 있다. 순행 동화는 ‘질녀[질러]’처럼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있는 것이고, 역행 동화는 ‘밤만[밤만]’처럼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는 것이다. 한편 동화의 정도에 따라 완전 동화와 부분 동화로 구분될 수도 있다. 완전 동화는 ‘듣는[든는]’처럼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같아지는 것이고, 부분 동화는 ‘숙명[송명]’처럼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일부 특성만 닮는 것이다.

**[활동]** 다음 단어 중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고르시오.

- 달님[달림]      국물[궁물]      잠무[잠무]      진리[질리]      칼날[칼랄]

조건	예	아니요
순행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입니까?		○
완전 동화가 일어나는 단어입니까?	○	

- ① 달님, 국물                                      ② 달님, 잠무                                      ③ 국물, 칼날
- ④ 잠무, 진리                                      ⑤ 진리, 칼날

[21004-0026]

### 03 <보기>를 참고할 때,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절의 끝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지만, 탈락, 교체 등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음절의 끝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또한 음절의 끝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에 거센소리,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예컨대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으로만 한정할 때, ‘걷다[걷따]’에서처럼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넓다[널따]’에서처럼 탈락만 일어나는 경우, ‘깎다[깎따]’에서처럼 교체만 일어나는 경우, ‘웁다[웁따]’에서처럼 탈락과 교체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 ① 담다[담:따] → 탈락이나 교체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없다[업:따] → 탈락만 일어난다.
- ③ 웁다[웁:따] → 탈락만 일어난다.
- ④ 같대[간따] → 교체만 일어난다.
- ⑤ 있다[인따] → 탈락과 교체가 모두 일어난다.

[21004-0027]

### 04 <보기>의 ㉠~㉣이 [활동]에 대한 학생의 답안이라 할 때,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활동] 제시어를 발음할 때 조음 위치, 조음 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자음 체계를 활용해 설명해 보시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ㅂ/ㅃ/ㅍ	ㄷ/ㄸ/ㅌ		ㄱ/ㅋ/ㆁ	
파찰음			ㅈ/ㅉ/ㅊ		
마찰음		ㅅ/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제시어	조음 위치, 조음 방법과 관련한 음운 변동의 특징	
국민[궁민]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 ....	㉠
논밭[논밭]	조음 방법은 바뀌지 않고 조음 위치만 바뀐다. ....	㉡
굳이[구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 ....	㉢
실내[실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지 않는다.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1004-0028]

05 <보기>의 ㉠, ㉡의 예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국어의 된소리되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규칙적인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 'ㅂ, ㄷ, ㄱ'과 같은 자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 가령 '밥+도 → [밥또], 곧+잘 → [곧잘], 간척+-지 → [간척찌]'에서 보이는 된소리되기가 그 예이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예외가 없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하나는 ㉡ 'ㅁ,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 가령 '삼+-지 → [삼:찌], 안+-고 → [안:꼬]'에서 보이는 된소리되기가 그 예이다. 이 된소리되기는 앞의 된소리되기와는 달리 조건이 까다롭다. 용언이라는 전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간 뒤에 오는 형태소도 대개 형식 형태소 중에서 어미에만 국한된다.

	㉠	㉡
①	법+만 → [법만]	담+-+자 → [담:짜]
②	국+밥 → [국빡]	담+-+자 → [담:짜]
③	국+밥 → [국빡]	안+방 → [안뽕]
④	말+-+형 → [마텝]	안+방 → [안뽕]
⑤	말+-+형 → [마텝]	숨+-+고 → [숨: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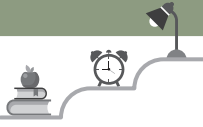
# 언어 01 음운 ①

20003-0165

## 0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격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굳이 → [구지]’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
- ② ‘눅는다 → [농는다]’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
- ③ ‘종로 → [종노]’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며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 ④ ‘입마개 → [임마개]’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며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 ⑤ ‘잘나다 → [잘라다]’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며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20003-0166

## 02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대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인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인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않은[아는]’에서는 ‘탈락’이 두 번 일어나는군.
- ② ‘꽃망울[곶망울]’에서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나는군.
- ③ ‘식용유[시공뉴]’에서는 ‘첨가’가 두 번 일어나는군.
- ④ ‘첫해[처태]’에서는 ‘교체’와 ‘축약’이 한 번씩 일어나는군.
- ⑤ ‘얹다[알:따]’에서는 ‘교체’와 ‘첨가’가 한 번씩 일어나는군.

20003-0167

## 03 음운 변동 ㉠~㉣이 일어나는 경우를 ㉡~㉣에서 찾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

- ㉠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므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 ㉢ 평음(예사소리)이 경음(된소리)으로 바뀌는 현상
-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둘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ㄹ’나 반모음 ‘j’로 시작할 때 ‘ㄴ’이 그 사이에 덧붙는 현상

<예시>

- |            |              |
|------------|--------------|
| ㉡ 붙는[분는]   | ㉢ 굶다[극따]     |
| ㉣ 닭았제[다깁제] | ㉣ 저녁연기[저녕년기] |

- ① ㉠이 일어나는 예는 ㉡, ㉣이다.
- ② ㉡이 일어나는 예는 ㉡뿐이다.
- ③ ㉢이 일어나는 예는 ㉢, ㉣이다.
- ④ ㉣이 일어나는 예는 ㉢뿐이다.
- ⑤ ㉣이 일어나는 예는 ㉣뿐이다.

20003-0168

**04**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어 → 기어[기여]’에서는 하나의 단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피-+-어서 → 피서[피:서]’에서는 두 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가-+-아라 → 가라[가라]’에서는 동일한 두 모음이 만나 하나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담그-+-아 → 담가[담가]’에서는 서로 다른 모음이 만나 모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치우-+-어라 → 치위라[치위라]’에서는 하나의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20003-0169

**05** <보기>의 ㉠~㉣과 관련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형식 형태소와 관련된 음운 변동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조항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예와 함께 이해해 보자.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ㅍ)’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스, ㅈ]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24항**

어간 받침 ‘ㄴ(ㄹ),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 ① ㉠: ‘홀이불[훈니불]’에는 조사나 접미사가 없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 ② ㉠: ‘같이[가치]’에서는 어근의 받침 ‘ㅌ’ 뒤에 접미사의 모음 ‘ㅣ’가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③ ㉡: ‘달히다[다치다]’에서는 접미사의 자음이 탈락된 후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④ ㉢: ‘신기다[신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 ⑤ ㉢: ‘담고[담:꼬]’에서는 어간의 받침 ‘ㄹ’ 뒤에 ‘ㄱ’을 첫소리로 가지는 어미가 결합하여 경음화가 일어나는군.



20003-0172

## 03 &lt;보기&gt;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ㅎ’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ㅎ’이 평음과 곧바로 합쳐져 격음(거센소리)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어간의 끝 ‘ㅎ’ 뒤에 평음 ‘ㄱ, ㄷ,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 ㉠

• 어근의 품사가 동사 또는 형용사이며 ‘ㅎ’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 ..... ㉡

둘째, ‘ㅎ’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격음화(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어간의 끝 ‘ㅎ’ 뒤에 비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 ㉢

•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

- ① ㉠: 앉힘[안침]  
 ② ㉠: 많고[만:코]  
 ③ ㉡: 빵는[뽕:는]  
 ④ ㉢: 좋던[조:던]  
 ⑤ ㉣: 넓히는[널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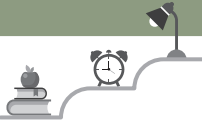
20003-0173

## 04 &lt;보기&gt;의 ㉠과 ㉡의 예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 보기 |

유음과 어떠한 자음이 만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음 뒤에 경음(된소리), 격음(거센소리), 파찰음, 유음이 올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음 뒤에 ‘ㄴ’이 오면 ㉠유음이 탈락하거나, ㉡유음 뒤의 ‘ㄴ’이 ‘ㄹ’로 교체된다.

	㉠	㉡
①	(생물이) 늙는[늑는]	일념[일렴]
②	(벌레가) 우니[우:니]	혼란[홀:란]
③	(소원을) 비니[비:니]	실눈[실:눈]
④	(사람이) 사네[사:네]	한라산[할:라산]
⑤	(물건이) 닳는[달른]	곤란[골:란]



20003-0174

## 05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며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모음 또는 반모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게 되고, 반영하지 않으면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아래의 ㉠~㉤에 대하여 음운 변동과 표기 반영 여부를 파악해 보자. (단, 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는다.)

- ㉠: 뜨-+-어 → 떠[떠]
- ㉡: 쏘-+-아 → 쏘[쏘]
- ㉢: 끼-+-어 → 끼어[끼여]
- ㉣: 사-+-아서 → 사서[사서]
- ㉤: 기다리-+-어서 → 기다려서[기다려서]

- ① ㉠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③ ㉢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⑤ ㉤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문법 01 음운 ①

9003-0165

## 01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가)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어에 따라서는 네 가지 음운 변동 중 어느 하나의 유형만 적용되기도 하고 둘 이상의 유형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변동이 둘 이상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나) 놓 + 는 → [논는], 앞 + 만 → [암만], 꺾 + 는 → [짚는]

- ① 교체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한 가지 적용되었다.
- ② 탈락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한 가지 적용되었다.
- ③ 교체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적용되었다.
- ④ 탈락과 첨가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한 가지씩 적용되었다.
- ⑤ 교체와 축약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한 가지씩 적용되었다.

9003-0166

## 02 (가)에 제시된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바탕으로 (나)의 ㉠, ㉡을 해석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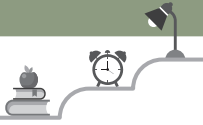
(가)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모음	ㅣ	꺀	ㅡ	ㅓ
중모음	ㅕ	ㅛ	ㅜ	ㅜ
저모음	ㅗ		ㅓ	

(나) ㉠ 물 > 물, 불 > 불, 풀 > 풀  
 ㉡ 깡충깡충 > 깡충깡충, 오뚝이 > 오뚝이

- ① ㉠은 입술 모양이 바뀌는 변화이고, ㉡은 혀의 앞뒤가 바뀌는 변화이다.
- ② ㉠은 입술 모양이 바뀌는 변화이고, ㉡은 혀의 높낮이가 바뀌는 변화이다.
- ③ ㉠은 혀의 높낮이가 바뀌는 변화이고, ㉡은 입술 모양이 바뀌는 변화이다.
- ④ ㉠은 혀의 높낮이가 바뀌는 변화이고, ㉡은 혀의 앞뒤가 바뀌는 변화이다.
- ⑤ ㉠은 혀의 앞뒤가 바뀌는 변화이고, ㉡은 혀의 높낮이가 바뀌는 변화이다.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연음’이라는 중요한 발음 원리가 있다. 이것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가령 ‘뭉-’이라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으면’이나 접미사 ‘-음’이 결합하면 ‘뭉어[무꺼], 뭉으면[무끄면], 뭉음[무꿈]’에서 보듯이 어간의 마지막 자음 ‘ㄱ’이 뒤 음절 초성으로 넘어가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놓인 자음은 종성보다는 초성에서 발음하는 것을 언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구체화된 것이 연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연음을 음운 변동의 한 종류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연음이 일어나면 자음의 위치가 앞 음절의 종성에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질 뿐, 자음 자체가 다른 음운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가령 앞의 예에서 어간 ‘뭉-’의 말음인 ‘ㄱ’이 연음이 되었다고 해서 ‘ㄱ’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거나 탈락 또는 축약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음을 음운 변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과 배타적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못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연음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 즉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연음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지만 예외도 없지는 않다. 앞 형태소의 자음이 그대로 뒤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밭’ 뒤에 주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면 ‘밭이[바치], 밭이다[바치다]’와 같이 ‘ㅌ’이 ‘ㄷ’으로 바뀐다. 이것은 구개음화라는 음운 변화 때문에 일어난 예외이다. 구개음화가 없던 시절에는 ‘밭이, 밭이다’가 [바티], [바티다]로 발음되었다. 이 외에도 연음의 예외는 더 존재한다.

9003-0167

**03** **윗글을 읽고 현실 발음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닭이’를 [다기]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달기]가 올바른 발음이야.
- ② ‘꽃에’를 [꼬세]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꼬체]가 올바른 발음이야.
- ③ ‘밭을’을 [바슬]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바출]이 올바른 발음이야.
- ④ ‘부엌에’를 [부어게]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부어케]가 올바른 발음이야.
- ⑤ ‘여덟이’를 [여더리]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여덜비]가 올바른 발음이야.

9003-0168

**04** 윗글을 읽고 ㉠~㉣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훤이다’는 [훤치다]로 발음한다.
- ㉡ ‘끓-’에 어미 ‘-어’가 결합된 ‘끓어’는 [끄러]로 발음한다.
- ㉢ ‘값’에 접미사 ‘-어치’가 결합된 ‘값어치’는 [가버치]로 발음한다.

- ①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②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③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④ ㉡,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⑤ ㉠, ㉡, ㉢은 모두 연음의 예외이다.

9003-0169

**05** 다음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뽕냐?[뽕랴], 뉘냐?[뉘랴], 짹냐?[짹랴]
- ㉡ 막일[망닐], 색연필[생년필], 한국 요리[한:궁노리]
- ㉢ 물약[물랴], 불여우[불려우], 들일[들:릴]

- ① 첨가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② 음운의 개수를 바꾸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③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되었다.
- ④ 앞선 자음의 영향으로 뒤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⑤ 음절 끝의 자음을 다른 자음으로 바꾸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9003-0170

01 다음 글을 읽고 **활동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최소의 말소리 단위이다. 이러한 음운의 특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자리에 오는 서로 다른 소리로 인해 뜻이 구분되는 단어 쌍을 찾는 것이 있다. 가령 ‘물’과 ‘불’은 중성과 중성은 동일하지만 초성에 오는 자음이 ‘ㅁ’과 ‘ㅂ’으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므로 ‘ㅁ’과 ‘ㅂ’은 서로 다른 음운이 된다.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 이외에 장단과 같은 비분절 음운도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처럼 음운의 차이가 단어의 뜻을 구분한다는 인식은 1446년에 간행된 『훈민정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는 ‘ㅎ’과 ‘ㆁ’, ‘ㅅ’과 ‘ㅆ’의 차이가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 ‘혀’와 ‘혓’, ‘소다’와 ‘쏘다’를 활용하고 있다. ‘혀’는 신체의 일부인 ‘혀(舌)’, ‘혓’는 ‘끌다(引)’라는 뜻을 가진 ‘혓-’의 활용형 ‘혓’를 가리킨다. ‘소다’는 ‘엎다’라는 의미의 ‘손(覆)’에 어미 ‘-아’가 결합된 활용형이고, ‘쏘다’는 ‘발사하다’라는 의미의 ‘쏘-(射)’에 어미 ‘-다’가 결합된 활용형이다. ‘혀’와 ‘혓’는 ‘ㅎ’과 ‘ㆁ’의 차이에 의한 것이고 ‘소다’와 ‘쏘다’의 차이는 ‘ㅅ’과 ‘ㅆ’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음운이 단어의 뜻을 구분해 준다는 특성을 잘 보여 준다.

- ① ‘ㄷ’과 ‘ㄸ’가 서로 다른 음운임을 보여 주는 예로 ‘글’과 ‘길’을 찾았다.
- ② ‘ㅍ’과 ‘ㅂ’가 서로 다른 음운임을 보여 주는 예로 ‘밭’과 ‘불’을 찾았다.
- ③ ‘ㅈ’과 ‘ㅉ’이 서로 다른 음운임을 보여 주는 예로 ‘자다’와 ‘차다’를 찾았다.
- ④ 장단에 의해 서로 다른 단어가 되는 예로 ‘밤[밤:](栗)’과 ‘밤[밤](夜)’을 찾았다.
- ⑤ 억양에 의해 서로 다른 단어가 되는 예로 ‘떡어(의문형)’와 ‘떡어(평서형)’를 찾았다.

[02~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 중 낱낱의 소리로 쪼개어질 수 있는 것을 분절음(또는 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분절음에는 자음과 단모음, 그리고 반모음이 있다. 자음은 홀로 발음할 수 없으며 발음할 때 입안의 어디에서인가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다. 모음은 자음과 달리 홀로 발음할 수 있으며 발음할 때에도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그 성격이 상반된다. 반면 반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음과 같으나 홀로 발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같다. 즉, 반모음은 자음이나 모음 어느 쪽과도 구분되는 성격의 분절음인 것이다. 그러나 반모음도 음운에 속한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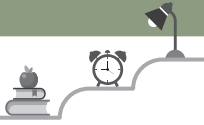
반모음은 홀로 발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 또는 삼중 모음과 같은 복합적인 모음의 일부로 쓰인다. 국어의 반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모음 ‘ㅣ’와 성격이 비슷한 ‘j’이고 다른 하나는 단모음 ‘ㄱ, ㅋ’와 성격이 비슷한 ‘w’이다. 반모음 ‘j’가 포함된 이중 모음에는 ‘ㅟ, ㅠ, ㅞ, ㅟ, ㅟ, ㅟ, ㅟ, ㅟ’ 등이 있으며, 반모음 ‘w’가 포함된 이중 모음에는 ‘ㅜ, ㅠ, ㅞ, ㅟ’ 등이 있다. ‘ㅟ, ㅠ, ㅞ, ㅟ, ㅟ, ㅟ, ㅟ, ㅟ’는 반모음 ‘j’ 뒤에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가 결합되어 있고, ‘ㅜ, ㅠ, ㅞ, ㅟ’는 반모음 ‘w’ 뒤에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어의 이중 모음은 대부분 반모음 ‘j’와 ‘w’가 다른 단모음 앞에 결합하는 구조를 가진다.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자음보다는 모음에 좀 더 가깝다. ‘반자음’ 대신 ‘반모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래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인접할 때 단모음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가령 어간 ‘배우-’와 ‘쏘이-’ 뒤에 어미 ‘-어 서’가 결합할 때 그 활용형이 ‘배워서’와 ‘쏘여서’로 나타나는 것은 각각 단모음 ‘우’와 ‘ㅣ’가 반모음 ‘w’와 ‘j’로 바뀐 결과이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절의 수는 줄어들게 되나 음운의 수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음운 변동은 교체에 속한다.

9003-0171

0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중 모음에는 두 개의 음운이 포함되어 있다.
- ②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항상 음절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 ③ ‘ㅞ’와 ‘ㅟ’를 비교하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모두 다른 이중 모음이다.
- ④ ‘다쳐(다치 + 어)’를 [다치]로 발음하는 것은 반모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 ⑤ ‘ㅠ’와 ‘ㅟ’를 비교하면 반모음은 다르지만 단모음은 같은 이중 모음이다.



9003-0172

**03** ㉠~㉣ 중 변화의 결과 반모음이 나타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도박 > 도와, 구버 > 구워  
 ㉡ 기+어 → [기여], 비+어 → [비여]  
 ㉢ 퍼+어 → [퍼], 켜+어 → [켜]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9003-0173

**04** (가)의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ㅊ		
	격음			ㅉ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진리[질리], 선릉[설릉], 국민[궁민], 밤물[밤물]

- ①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② 앞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③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④ 앞에 오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⑤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9003-0174

**05**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의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 ㉠ 꿩+는 → [끼른], 훔+는 → [훔른]  
 ㉡ 닭+고 → [달코], 닭+지 → [달치]  
 ㉢ 읊+고 → [읍꼬], 읊+지 → [읍찌]

- ① 한 음운이 탈락하였다.  
 ② 한 음운이 첨가되었다.  
 ③ 음운의 수가 줄어들었다.  
 ④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다.  
 ⑤ 두 음운이 제삼의 음운으로 축약되었다.

8003-0162

01 ㉠~㉣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의 예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 한 음운이 탈락하여 없어지는 음운 변동
- ㉢ 두 개의 음운이 결합하여 제3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변동

	㉠	㉡	㉢
①	밭+이 → [바치]	크+어 → [커]	밥+만 → [밤만]
②	쌓+고 → [싸코]	삶+도 → [삼:도]	밭+이 → [바치]
③	크+어 → [커]	닭+지 → [달치]	삶+도 → [삼:도]
④	삶+도 → [삼:도]	닭+지 → [달치]	쌓+고 → [싸코]
⑤	밥+만 → [밤만]	크+어 → [커]	닭+지 → [달치]

8003-0163

02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ㅅ		
	된소리			ㅆ		
	거센소리			ㅈ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가)를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자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 ㄱ, ㄲ, ㅋ, ㅇ : ( ㉠ )
- ㅃ, ㄸ, ㅌ : ( ㉡ )
- ㅅ, ㅆ, ㅈ : ( ㉢ )
- ㅅ, ㅆ, ㅎ : ( ㉣ )
- ㅁ, ㄴ, ㅇ : ( ㉤ )

- ① ㉠ : 연구개에서 발음되는 소리
- ② ㉡ :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나는 된소리
- ③ ㉢ : 막았다가 좁은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 ④ ㉣ : 좁은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 ⑤ ㉤ : 코로 공기가 흐르면서 나는 소리





8003-0164

### 03 ㉠에 속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의 적용 양상은 형태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할 때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뱀-’ 뒤에 ‘-고’가 와서 [뱀:꼬]로 발음될 때에는 겹받침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와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만약 ‘뱀-’ 뒤에 ‘-는’이 결합한다면 이번에는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적용되어 [뱀:는]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다른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국어의 음절 중성에서 자음을 두 개 발음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하면 ㉠ 자음군 단순화와 더불어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① 닭+만 → [당만]                      ② 잃+는 → [일른]                      ③ 읊+고 → [읍꼬]
- ④ 읊+는 → [음:는]                      ⑤ 짧+지 → [짤찌]

8003-0165

### 04 (가)를 참고할 때 (나)의 ㉠ 중 음운 변동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가)

같은 자음이 탈락한다고 해서 동일한 음운 변동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즉 ‘탈락’이라는 유형에 속한다는 점은 같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음운 변동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가령 동일한 ‘ㄹ’이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닭+는 → [담:는]’에서 ‘ㄹ’이 탈락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것이고 ‘알+는 → [아:는]’에서 ‘ㄹ’이 탈락하는 것은 유음 탈락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닭+는 → [담:는]’의 경우는 음절의 중성에서 자음이 두 개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에 의한 것이지만, ‘알+는 → [아:는]’은 그러한 제약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

다음 ㉠은 모두 ‘ㅎ’이 탈락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ㅎ’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다.

㉠ 달아[다라], 않는[안는], 놓으니[노으니], 쌓아[싸아], 끓은[끄는]

- ① 달아[다라]                              ② 않는[안는]                              ③ 놓으니[노으니]
- ④ 쌓아[싸아]                              ⑤ 끓은[끄는]



8003-0166

**05** ㉠, ㉡의 예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어의 된소리되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규칙적인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 ‘ㅂ, ㄷ, ㄱ’과 같은 자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 가령 ‘속+지 → [속찌], 밥+도 → [밥또]’에서 보이는 된소리되기가 그 예이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예외가 없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다른 하나는 비음에 속하는 ㉡ ‘ㅁ,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다. 가령 ‘삼+지 → [삼찌], 안+고 → [안꼬]’에서 보이는 된소리되기가 그 예이다. 이 된소리되기는 앞의 된소리되기와는 달리 조건이 까다롭다. ‘용언’이라는 문법적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형태소도 문법 형태소 중 어미에만 국한된다. ‘안기다’와 같이 용언 어간 ‘안-’ 뒤에 접미사 ‘-기-’가 올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	㉡
①	법+치 → [법치]	답+자 → [답찌]
②	국+사 → [국싸]	답+자 → [답찌]
③	국+사 → [국싸]	안+방 → [안뺑]
④	말+형 → [마텃]	안+방 → [안뺑]
⑤	말+형 → [마텃]	숨+고 → [숨꼬]

8003-0167

01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솟+고 → [솟꼬], 옆+지 → [엿찌], 꺾+다 → [꼭따]
- ㉡ 훔+는 → [훔른], 꿔+는 → [끌른], 잃+는 → [일른]

- ① ㉠은 교체에 속하는 두 개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② ㉡은 교체와 탈락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 ③ ㉠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적용된 예로 ‘놓+고 → [노꼬]’를 들 수 있다.
- ④ ㉡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적용된 예로 ‘훔+는 → [훔른]’을 들 수 있다.
- ⑤ ㉠, ㉡은 모두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을 제한하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8003-0168

02 다음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절의 수가 줄어들면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하므로 모음의 수가 줄면 자동적으로 음절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음의 수가 줄어드는 방식은 반드시 모음이 탈락하거나 또는 두 개의 모음이 한 모음으로 축약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령 단모음이 탈락하지 않고 반모음인 ‘j’나 ‘w’로 바뀌어도 모음의 수가 줄어든다. 이럴 경우 ㉠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서도 음절 수는 줄게 된다.

- ① ‘아이’가 줄어서 ‘애[애:]’가 되었다.
- ② ‘쏘-’에 ‘-아’가 결합하여 ‘쑈[쑈:]’가 되었다.
- ③ ‘쓰-’에 ‘-어서’가 결합하여 ‘써서[써서:]’가 되었다.
- ④ ‘깨-’에 ‘-어서’가 결합하여 ‘껴서[껴:서:]’가 되었다.
- ⑤ ‘가-’에 ‘-아서’가 결합하여 ‘가서[가서:]’가 되었다.

8003-0169

03 (가)를 참고하여 (나)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가) 국어의 단모음 체계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꺄	ㅡ	ㅓ
중모음	ㅐ	ㅑ	ㅕ	ㅗ
저모음	ㅐ		ㅓ	

(나) 표준어 규정

제9항 ㉠ ‘ㅣ’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내기	-나기	서울-, 시골-, 신출-, 풋-
냄비	남비	
동맹이-치다	동당이-치다	

- ① 저모음이 고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② 고모음이 저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③ 원순 모음이 평순 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④ 전설 모음이 후설 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⑤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8003-0170

## 04 다음 설명을 읽고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 변화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것은 음운 변동의 유형이 무엇이나에 따라 결정된다. 탈락이나 축약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고, 첨가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 반면 교체는 음운 개수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① ‘앞일’을 [암닐]로 발음하는 데에는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났겠군.
- ② ‘넓고’를 [널꼬]로 발음하는 데에는 교체와 탈락이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가 줄어들었겠군.
- ③ ‘끓고’를 [끌꼬]로 발음하는 데에는 축약이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가 줄어들었겠군.
- ④ ‘피어’를 [피여]로 발음하는 데에는 교체만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겠군.
- ⑤ ‘숲만’을 [숨만]으로 발음하는 데에는 교체만 두 번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겠군.

